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표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송 하 나¹⁾

성균관 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과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및 근교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58명의 아동과 그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아동이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아버지들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을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 아동이 만든 이야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도움을 주는 대상, 아동을 지키는 대상, 애정의 대상, 일하는 대상, 집안 갈등의 대상, 처벌하는 대상의 여섯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으로 표상한 반면, 남아는 여아보다 아버지를 일하는 대상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표상은 아버지의 스트레스 반응에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아버지의 문제 중심 반응과 정서 중심 반응과는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문제 중심 반응과 정서 중심 반응은 아동을 지키는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권위가 있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성역할 모델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아버지에 대한 표상,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모델

1)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jni4ever@skku.edu)

I. 서 론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구 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정에서 대리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이 하루 중 일 시간을 보내는 보육 기관 교사의 질과 역할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 내에서 양육자와 가사분담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등교를 돕거나 학급 활동을 참관하는 것이 이제 크게 낯선 일이 아니며 아버지를 위한 육아 지침서와 아버지들의 모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다 객관적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가 일반 가정의 아버지보다 아동의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았으며(이영미, 민하영, 2006; 이정순, 2003), 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 관계가 좋은 아버지일수록 아동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이성희, 한은주, 1998). 이러한 실제적 변화와 연구 결과들은 핵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더불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양육자라는 것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사회 정서 능력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의 초기부터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머니의 역할과는 달리, 아버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아버지를 어머니의 조력자이며 이차적인 양육 대리자로 보고 아동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입장이다. Belsky와 그 동료들은(e.g., Belsky, 1984; Belsky & Pensky, 1988; Belsky, Rovine, Fish, 1989), 한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아버지에게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좋은 부부관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적 양육 행동의 위험을 줄여주고 따라서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덜어 준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지지 및 좋은 부부 관계는 아동 사회정서 능력의 보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착 이론가인 Bowlby (1973, 1980) 역시 아동이 아버지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개별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머니와의 사이에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이 다른 관계들에 적용된 것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영향력을 부가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입장은 아버지가 아동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독특하고 독립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들은 아동과 더 활동적이고 집중적으로 놀이하는 경향이 있다. Parke와 McDowell(1998)은 아버지-아동 상호 작용은 강도가 매우 강하고 활동적이어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보다 아동에게 더 큰 즐거움과 깊은 인상을 준다고 하며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한 종단연구에서는 영아와 아버지의 도전적이고 민감한 놀이가 이후 중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 표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euerer-Englisch, & Zimmermann, 2002). 이러한 결과들은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도전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정서적 경험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Boyum & Parke, 1995). 즉, 아버지가 아동에게 사회화 과정의 성역할 모델이 되어 아동의 고유한 사회정서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어린 아동이 아버지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다. 아동은 대인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애착 연구자들은(e.g., Bowlby, 1973, 1980; Bretherton & Munholland, 1999, Water, 1987) 아동이 생의 초기부터 친숙한 양육자와 반복되는 상호 작용을 통해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 혹은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내적 실행 모델로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양육자가 아동이 보내는 요구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아동은 양육자를 애정과 지지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는 유능한 존재로 생각하는 내면의 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Bowlby, 1973, 1980). 이러한 표상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이후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거나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아동의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아버지에 대한 개별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연구들(e.g., Grossmann, et al., 2002; Page & Bretherton, 2001)이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아동의 전체적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은 전체적 안정성과 관계가 없었던 반면 아버지에 대한 개별적인 부적 표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하나, 2006a). 그러나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표상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 표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Lewis, 2005) 아버지에 대한 표상을 부정과 정적의 두 수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ge와 Bretherton(2003)은 이혼이나 보호 감찰중인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나레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들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주 양육자, 권위 있는 훈육자로 인식하였고 아버지에게 대해 분리 불안을 나타낸 아동들도 있었다. 아버지의 이미지에 연구한 정순화와 김시혜(1996)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들은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 부양자, 놀이의 대상 등으로 묘사하였으며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성숙한 인격을 지닌 존재, 애정의 존재, 상담자, 경제 활동자, 엄격한 존재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희, 최명선, 2004). 이런 연구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표상을 세분화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유형의 아버지의 정서적 양육 행동이 아동의 표상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정서 사회화와 관련된 부모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Eisenberg와 동료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Spinrad, & Cumberland, 1998)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을 일대일 상황에서 가정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루트로 개념화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가 정서적 문제 해결을 격려하는 반응을 보일 때 아동의 정서 이해력이 높았으며(Denham, Zoller, & Couchoud, 1994; Denham, Mitchell-Copeland, Standberg, Auerbach, & Blair, 1997) 반대로 처벌적 반응은 아동의 위축 행동 및 낮은 정서 이해력과 관련이 있었다(권연희, 이종희, 2005; Denham et al., 1997).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Gottman, Kats, Hooven, 1996).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직접적인 정서적 반응들이 아동의 아버지에게 대한 표상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한유미, 손경화, 1998)는 것을 고려하여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이 아버지의 정서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아동의 아버지에게 대한 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부모 가정의 유아 58명과 그들의 아버지였다. 남아 33명과 여아 25명으로 전체 아동의 평균 연령은 4세 2개월(50.31개월, SD=2.54)이며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전체 아동의 82.8%가 1명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었고 10.3%는 외동이였다.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35세 11개월(430.90개월, SD=35.32)로 98%의 아버지가 고졸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졸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과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29.3%였으며 가계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가정이 전체 61.7%, 그 중 5천만원이 넘는 가정도 12.7%로 연구대상자들의 소득계층은 전체적으로 중산층이었다. 아동과 1-2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응답한 아버지가 전체 50%로 가장 많았으며 5시간 이상을 같이 보내는 아버지는 없었다. 아버지들을 피험자로 구하기 위해 먼저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200여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을 통해 아버지들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연구초기 단계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00여 명의 아버지 피험자 중에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중간에 그만둔 경우를 제외한 58쌍의 아동-아버지의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2. 연구 도구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 반응은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가 개발한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를 연구자가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CNES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 일상생활에서 아동에게 흔히 일어나는 정서적 상황을 담고 있는 12개의 에피소드에 대해 부모가 반응할 수 있는 6가지 하위 유형을 각각 제시하여 전체 72문항으로 이루어진다. 6가지 하위 유형은 스트레스 반응(distress reaction), 처벌적 반응(punitive reaction), 정서 표현 격려(encouragement of emotion expression), 문제중심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 정서중심반응(emotion-focused reaction),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action)인데 스트레스 반응은 아이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 때문에 부모가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반응이고 처벌적 반응은 아이를 나무라거나 어떤 특권을 빼앗는 등의 벌을 주는 반응이며 정서 표현의 격려는 아이가 부정적 정서를 숨기지 않고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는 반응이다. 또한 문제 중심 반응은 부모가 아이에게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정서중심 반응은 아이의 부정적 정서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반응, 최소화 반응은 아이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반응이다.

영어로 제작된 원척도는 연구자와 아동학 전문가 1명이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영문학전공 대학원생이 영어로 역 번역한 후 12가지 에피소드나 문항 중 생소한 것이 없는지 안면 타당도를 살폈다. 에피소드 들은 아이가 자전 거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주사를 맞아야 할 때, 다른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은 경우 등 모두 국내 부모나 아동들에게도 친숙한 상황이었다. 각 하위 영역별로 신뢰도를 계산하고 내적 합치도를 저해하는 7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6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인 아버지들은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반응을 본인이 얼마나 보일지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수정되어 본 연구에서 쓰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스트레스반응(9문항) .77, 처벌 반응(9문항) .82, 정서표현 격려(11문항) .81, 문제 중심 반응(12문항) .80, 정서 중심 반응(12문항) .83, 최소화 반응(11문항) .72로 나타났다.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

아동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은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가 개발한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ASCT)를 가지고 인터뷰로 측정하였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아동이 위협이나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요구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어 아동이 누구를 도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신뢰나 애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가 이야기 속에 나타나게 된다.

본 도구 역시 영어로 된 것을 번역, 역번역하고 국내 학자들이 선행 연구에서 번역한 것들을 참고하여 유령 대신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SCT는 아동에게 가족 구성원과 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표상을 이야기 속에 투사하게 하는 도구이다.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엎질러진 주스’ 이야기는 아동이 밥을 먹다 주스를 엎지른 상황, ‘다친 무릎’에서는 아동이 바위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는 상황, ‘침대 밑에 있는 귀신’에서는 아동의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또한 ‘엄마 아빠의 여행’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있는데 ‘분리’ 이야기는 아이들을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상황, ‘재결합’은 여행에서 돌아온 부모를 다시 만나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부직포로 제작된 인형(엄마, 아빠, 할머니, 형(언니), 동생)과 장난감 소품(e.g., 그릇, 바위, 잔디)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OO가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줄래?”하고 질문을 하여 아동이 인형놀이를 하면서 이

야기의 다음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잘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뷰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선생님에게 더 이야기 해 줄 거 없니?” 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격려하였다. 아동과 연구자의 상호작용은 비디오와 오디오로 녹화되었고 전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도구는 원래 가족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표상을 알아보는 도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부분만을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여섯 가지로 범주화 한 것을 다른 평정자가 재검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의 기술치 분석에 나타나있다. 일치도는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와 자료처리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측정하는 설문지 패키지를 교사가 각 가정에 전달하였고 아버지들은 이를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였다. 아버지의 거부, 설문지 작성 오류, 아동의 결석/ 전학, 연구자 오류 등으로 제외된 자료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애착 이야기 과제는 각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 집에서 자유 놀이 시간에 실시하였다. 사전에 같이 시간을 보내 친밀감(rapport)을 형성하였고 실험실은 장난감과 면접도구,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었다. 비디오는 아동이 볼 수 없는 구석에 가려 설치하였다. 실험 상황에 크게 불안을 보이거나 카메라를 인식한 아동은 없었으며 한 아동의 면접 시간은 평균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처리와 분석은 우선 각 변인에 대해 기술치를 제시하고 아동의 성별로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연속 변인인 인구학적 변인들과 아버지 반응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반응이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회귀 분석에서는 앞선 상관분석에서 아버지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통계 처리에는 SPSS version 14가 사용되었다.

III. 결 과

1. 기술치 분석

개방형으로 응답한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을 ASCT의 내용 분석 준거와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범주들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공통적으로 제시된 애정, 보호, 경제, 처벌의 네 가지 영역을 기본으로 세분화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모두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내용 분석의 범주와 예는 다음과 같다.

- 도움을 주는 대상 (e.g., ‘애가야 바위가 너무 높지? 내가 올려줄게’ 하고 아빠가 해줬어요)
- 아동을 지키는 대상 (e.g., 아빠가 괴물이랑 싸워서 괴물이 죽었어요.)
- 애정의 대상 (e.g., 아빠가 잘했다고 안아주고 뽀뽀해 줬어요)

- 일하는 대상 (e.g., 엄마랑 아빠랑 집에 와서 아빠는 다시 일하러 회사 갔어요)
- 집안 갈등의 대상 (e.g., 아빠가 엄마를 핑하고 찼어요),
- 처벌하는 대상 (e.g., 아빠가 주스 업질렀다고 몽둥이로 때려줬어)

또한 두 주요 변인인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표상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남아와 여아별로 표 1에 나타나 있다. 남아와 여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으로

표 1. 전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58)

변인	남아 (n=33)		여아(n=25)		t
	M	(SD)	M	SD	
[아버지 반응]					
스트레스 반응	-.09	(5.19)	-.69	(5.67)	.42
처벌 반응	-.63	(5.13)	1.49	(6.08)	-1.44
정서표현 격려	-1.90	(7.00)	.42	(5.75)	-1.35
문제 중심 반응	-.50	(6.80)	-1.74	(6.73)	.69
정서 중심 반응	-1.08	(6.74)	-2.89	(7.99)	.93
최소화 반응	-.04	(5.97)	1.30	(5.25)	-.89
[아동의 표상]					
도움을주는 대상	.55	(.51)	.32	(.48)	1.72
지키는 사람	.48	(.51)	.36	(.49)	.94
애정의 대상	.06	(.24)	.32	(.48)	-2.49*
일하는 사람	.12	(.33)	.00	(.00)	2.10*
집안갈등의 주체	.06	(.24)	.04	(.20)	.35
처벌하는 대상	.15	(.36)	.12	(.33)	.34

*p<.05

더 많이 생각하였으며($t=2.49$, $p<.05$) 남아는 여아보다 아버지를 일하는 대상으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0$, $p<.05$).

2.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 반응과 인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

표 2는 아버지의 반응과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나 정서 반응은 한 가정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강란혜, 2000) 어머니와 아동의 인구학적 변인들도 함께 고

려되었다. 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해,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 수준은 각각 어머니의 연령($r=.56$, $p<.001$) 및 교육수준($r=.77$,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 비슷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연 총소득은 아버지($r=.77$, $p<.001$)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중, 정서표현 격려는 형제의 수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며($r=.33$, $p<.05$), 아버지가 아동과 같이 지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반응($r=-.32$,

표 2.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아버지 반응의 상관 관계 ($n=5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														
1. 아동 연령	1													
2. 형제 수	-.12	1												
3. 아버지 연령	.10	-.07	1											
4. 아버지 교육	-.03	-.07	.14	1										
5. 아버지 시간	-.17	.09	.09	-.20	1									
6. 어머니 연령	.14	-.05	.56***	.10	.06	1								
7. 어머니 교육	-.17	.04	.05	.77***	-.02	.07	1							
8. 어머니 직업	.19	-.04	.06	.02	-.02	.11	-.05	1						
9. 연 총소득	.20	.06	.12	.57***	-.16	-.03	.46***	.24	1					
[아버지 반응]														
10. 스트레스	-.07	-.12	.06	-.02	-.32*	.02	-.11	.10	.11	1				
11. 처벌	-.08	-.11	-.04	-.12	-.21	.01	-.18	.09	-.06	.64***	1			
12. 정서표현격려	.21	.33*	-.20	-.07	.03	-.05	.02	.07	.06	-.04	-.00	1		
13. 문제중심	.06	.00	.00	-.03	.26*	-.01	-.06	-.09	.17	-.42**	-.39**	.17	1	
14. 정서중심	.17	-.16	.09	-.02	.26*	.04	-.03	-.03	.16	-.32*	-.37**	.16	.87***	1
15. 최소화	-.03	-.08	.26	-.03	.26	.19	-.08	.14	.07	.48***	.45***	.10	-.04	.01

* $p<.05$ ** $p<.01$ *** $p<.001$

$p<.05$)과 부적 상관인, 문제 중심반응($r=.26$, $p<.05$), 정서중심 반응($r=.26$, $p<.05$)과는 정적 상관들이 유의하였다. 이는, 아동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버지가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적게 보이는 반면, 문제 중심 반응이나 정서 중심 반응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표상과의 관계

아버지의 반응과 아동의 표상간의 부분 상관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아버지의 반응이 아동과 지내는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아동과 지내는 시간을 통제 변인으로 하였다. 아버지 반응의 각 하위 요인 중, 스트레스 반응($r=-.30$, $p<.05$)과 처벌적 반응($r=-.36$, $p<.01$)은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 중, 도와주는 대상으로의 표상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문제 중심($r=.24$, $p<.10$) 및 정서 중심 반응

($r=.24$, $p<.10$)은 도와주는 대상으로의 표상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아동들은 아버지가 스트레스나 처벌적 반응 등 부정적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버지를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었으며, 반대로 문제 중심이나 정서 중심 등 긍정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를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문제 중심($r=-.31$, $p<.05$)과 정서 중심 반응($r=-.29$, $p<.05$)은 아동의 지키는 대상으로의 표상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 중심 반응($r=-.29$, $p<.01$)은 아동의 갈등의 대상으로의 표상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문제 중심이나 정서 중심 같은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아버지를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 대상이나 집안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반응 각각이 아동의 표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반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3가지 표상(도와

표 3. 아버지의 반응과 아동의 표상간의 부분 상관 관계 (n=58)

아동의 표상	아버지 반응					
	스트레스	처벌	정서표현격려	문제 중심	정서 중심	최소화
도와주는대상	-.30*	-.36**	-.13	.24+	.24+	-.19
지키는 대상	-.11	.07	.08	-.31*	-.29*	.00
애정의 대상	-.20	-.10	.04	.10	.13	-.07
일하는 대상	-.16	-.08	-.17	.11	-.01	-.20
갈등의 대상	.11	.06	-.18	-.20	-.29*	-.02
처벌의 대상	.03	-.14	.03	-.09	-.04	-.01

통제변인: 아버지가 아동과 지내는 시간

+ $p<.10$ * $p<.05$ ** $p<.01$

표 4. 아동의 표상에 대한 아버지 반응의 영향 (n=58)

예측변인	준거변인: 도와주는 대상				
	β	t	R^2	R^2_{ch}	Fch
1단계 아버지 시간	.19	1.43	.04	.04	2.04
2단계 아버지 시간	.11	.88			
처벌 반응	-.36	-2.85**	.16**	.12	8.12**

	준거변인: 지키는 대상				
	β	t	R^2	R^2_{ch}	Fch
1단계 아버지 시간	.09	.69	.01	.01	.48
2단계 아버지 시간	.18	1.33			
문제중심 반응	-.32	-2.42*	.10*	.10	5.84*

	준거변인: 갈등의 대상				
	β	t	R^2	R^2_{ch}	Fch
1단계 아버지 시간	.05	.41	.00	.00	.17
2단계 아버지 시간	.13	.97			
정서중심 반응	-.30	-2.24*	.09+	.09	5.01*

+p<.10 *p<.05 **p<.01

주는 대상, 지키는 대상, 갈등의 대상)들을 준거 변인으로 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한 것은 아버지가 아동과 지내는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회귀 모델에서, 아버지의 시간이 첫 단계에 고려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 여섯개의 하위 변인들이 stepwise방법으로 고려되었다. 회귀 분석의 stepwise방식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들만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예측 변인이 더해졌을 때, 그 변인이 첫 번째 변인이 설명한 것에서 전체 변

량의 설명력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R^2_{ch} 로 나타내며 그 기여도가 유의한 것인지를 F_{ch} 로 나타낸다. 세 개의 준거 변인별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 따르면, 첫 번째 회귀 모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의 처벌 반응은 준거 변인인 도와주는 대상으로의 표상에 대한 회귀 모델의 전체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R^2_{ch}=.12$, $F_{ch}=8.12$, $p<.01$), 이는 아버지가 아동과 지내는 시간을 통제 하였을 때, 아버지의 처벌 반응이 도와주는 대상으로의 표상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한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 회귀 모델에서도, 아버지의 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지키는 대상으로의 표상에 대해서는 문제 중심 반응의 부적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R^2_{ch}=.10$, $F_{ch}=5.84$, $p<.05$), 갈등의 대상으로의 표상에 대해서는 정서 중심 반응의 부적 영향력이 유의한($R^2_{ch}=.09$, $F_{ch}=5.01$, $p<.05$),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아동을 위로하는 정서 중심 반응이 많을수록 아버지를 갈등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키는 대상은 아버지를 외부의 위협과 싸워 아동을 보호하는 힘(power)과 능력의 대상으로 표상하는 것인데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아버지의 문제 중심 반응과는 상반되는 경향이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의 여섯 가지 유형(스트레스 반응, 처벌 반응, 정서표현 격려, 문제 중심 반응, 정서 중심 반응, 최소화 반응)이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을 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내러티브를 사용하여 표상을 분석한 결과 유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도움을 주는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 애정의 대상, 일하는 사람, 집안 갈등의 주체, 그리고 처벌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경제 활동 및 유능감은 초등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김영

희, 최명선, 2001; 정순화, 김시혜, 1996; 조순화, 최명선, 2004)에서 현저한 이미지로 보고되고 있으며 애정의 대상은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돕고 위로하는 존재로의 표상을 보고한 Page와 Bretherton(2003)의 연구와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는 조금 달리 본 연구의 유아들은 경제활동 능력(e.g., 돈이 많은 아버지)보다는 단순히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e.g., 밥먹고 일해; 일하고 컴퓨터 해야 돼)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달리 유아들은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능감 같은 내적 특성보다는 보이는 외현적 행동에 주목하여 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경제적 부양자보다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표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하는 대상(e.g., 때려쳤어요; 뺨매쳤어)이나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주체로의 표상(e.g., 엄마를 핍 찢어요; 괴롭혔어)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또한 투사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내적 갈등과 경험을 더 솔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표상에 대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여아보다 아버지를 일하는 사람으로 표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일하는 대상으로 아버지를 인식한 여아는 없었고 여아들은 남아보다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으로 더 많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

를 활동적인 차원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고한 김영희와 최명선(2001)의 연구와 유사하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성 고정관념 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경제활동이나 부양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은 성 간(특히, 아버지와 아들)에 더 현저할 수 있다(Boyum & Parke, 1995; Halberstadt, & Eaton, 2002)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일련의 선행 연구들(이지선, 정옥분, 2002; 한유진, 유안진, 1998; Fivush, 1989)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남아에게 더 통제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아에게는 더 수용적이고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를 더 애정의 대상으로 인식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아버지의 반응 중, 스트레스 반응은 아버지와 아동이 같이 보내는 시간과 부정적 상관이, 문제중심 반응은 시간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직업의 종류를 제외한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이 아버지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이강이(2007)의 연구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는 단순히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양육참여 시간이 많은 아버지가 긍정적인 역할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 정서도 덜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강란혜, 2002; 송하나, 2006b)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육시간과 아버지 반응간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안 아버지가 긍정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인지, 혹은 아버지가 원래 애정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아동과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은 아버지를 도움과 보호의 주체로 인식하는데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스트레스와 처벌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아버지를 도움의 대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문제 중심 및 정서 중심 반응들은 아버지를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문제 중심 반응은 아동 스스로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화나 강압적 통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볼 기회가 박탈되므로 이러한 반응을 자주하는 아버지를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송수원과 정옥분(2002)은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 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서 아버

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아동들은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는 정서중심 반응이 높을수록 아버지를 갈등의 대상으로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중심 반응에 대한 이전의 논의와 상반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e.g., Eisenberg, & Fabes, 1994; Gottman, et al., 1996) 무조건 위로하는 부모의 반응이 아동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아동을 지나치게 수용하는 허용적 양육 태도와 비슷하게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정서 중심 반응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부모의 성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애정적 정서 표현은 어머니만큼 빈번하지 않으며(Denham, Renwick, & Holt, 1991) 아직 문화적으로 남성의 정서표현이 크게 격려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드물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정서적 위로는 지나치게 수용적인 어머니의 정서중심 반응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문제 중심 반응과 정서 중심 반응이 아동을 지키고 보호하는 대상으로서의 아버지 표상과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키는 대상은 아버지의 힘과 권위,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귀신을 무찌르거나 쫓아내는 등의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이미지로서 아동을 위로하거나 아동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이끄는 반응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른 측면으로, 부모의 권위적

(authoritarian) 양육태도와 권위를 가진 양육태도(authoritative)에 비교해보면 문제 중심반응은 정서중심 반응과 함께 권위를 가진 양육태도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버지를 권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아버지의 반응에 따라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아동의 내적 표상을 형성하는 주요한 양육자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은 후속 연구에서 더 상세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는 어머니, 형제, 조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더 폭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둘째, 성역할 모델이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상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반응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의 차이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부모의 성과 양육 참여 시간, 상호작용의 질 등을 더 고려하여 재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외에 다른 종류의 사회화 관련 행동이 어떻게 아동의 표상에 영향을 주는지 등도 더 자세히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란해 (2000). 아버지 역할 수행의 결정 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영희, 최명선 (2001). 의미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이미지 연구. 놀이치료연구, 4(2), 3-14.
- 송수원, 정옥분 (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고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 능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9(1), 59-74.
- 송하나 (2006a).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애착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3(3), 39-55.
- 송하나 (2006b).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 91-101
- 이강이 (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55-463.
- 이지선, 정옥분 (2002). 부모의 정서 표현 수용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33(1), 17-35.
- 이성희, 한은주 (1998).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영미, 민하영 (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93-101.
- 이정순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정순화, 김시혜 (1996). 동시를 통해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아동학회지, 17(2), 79-105.
- 조선화, 최명선 (2004).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5(6), 53-68.
- 한유미, 손경화 (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한유진, 유안진 (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Pensky, E. (1988).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 (pp.193-2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lsky, J., Rovine, M., & Fish, M. (1989). The developing family system. In M. Gunnar & E. Thelen (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Systems and development* (pp.119-166). NJ: Lawrence Erlbaum.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 593-608.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III.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89-111). NY: The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273-30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Denham, S.,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Fivush, R. (1989). Exploring sex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content of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Sex Roles*, 20, 675-691.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e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7-331.
- Halberstadt, A., & Eaton, K. L. (2002).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Emotions and the Family*, 34, 1/2, 35-62.
- Page, T. & Bretherton, I. (2001). Mother- and father-child attachment themes in the story completion of preschoolers from postdivorce

- families: do they predict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9.
- Page, T. & Bretherton, I. (2003).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o father in the narratives of preschool girls in post-divorce families: implications for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developmen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0(2), 99-122.
- Parke, R. D., & McDowell, D. J. (1998). Toward an expanded model of emotion socialization: new people, new pathways. *Psychological Inquiry*, 9, 4, 303-307.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Unpublished coding manual available from the author.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s.
- 1 차원고접수 : 2008.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8. 05. 28.
최종게재결정 : 2008. 06. 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Mental Representation of Father Figures

Hana Song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children's mental representations of fathers. Fifty-eight preschool/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fathers who lives in Seoul and its vicin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Korean version of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 was administered to the fathers, and children were interviewed using five stories in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Children's narratives were analyzed and six types of the representation of fathers were identified: figures for help, for protection, for love, for work, for family conflict, and for punishment. Fathers' distress reactions were negatively, but problem-focused reactions and emotion-focused reactions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positive representation of fath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s and gender role model in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Key words :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mental representation of fathers,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role model